



대도서관 “유튜브의 핵심은 돈벌이 아닌 퍼스널 브랜딩”

“난 ‘재미주의자, 트렌드 따르며 끊임없이 공부”



‘장군의 아들’ 박상민, 4월 하순

유튜브의 신(神)으로 불리는 사나이, CJ ENM 다이아TV 파트너 대도서관(본명 나동현·41·사진)의 이름 앞에는 ‘연봉 17억’, ‘구독자 190만명’ 같은 수식어가 늘 붙는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난 그저 ‘재미주의자’일 뿐, 유튜브를 돈벌이로만 생각하지 않는다. 유튜브의 핵심 가치도 돈벌이가 아닌 ‘퍼스널 브랜딩’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한다.

최근 강남구 삼성동 자택 겸 작업실에서 만난 대도서관은 국내에 아직 개인방송의 수익모델도 없던 시절, 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1인 미디어를 시작했다. 그것도 구독자를 늘리는 데 지름길로 여겨지는 선정성이나 욕설을 지양하면서 정제된 전문 콘텐츠로 한 우물을 묵묵히 판 결과 지금의 자리에 올랐다.

“2010년쯤 해외에서는 유튜브 수익모델

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는 없었죠. 그러다 사이의 ‘강남스타일’이 잘됐고, 수익도 났어요. 거기서 중요한 건, 다들 일반인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생각을 못 했어요. 하지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기성 언론이나 플랫폼에도 들어오는) 대규모 광고 시장이 진입한다면 업계가 훨씬 커질 거라고 예측했죠. 광고 규모가 그 플랫폼의 규모를 말해주니까요. 그래서 더욱 좋은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욕설 등을 지양한 이유죠.”

대도서관은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돈도 잘 벌어야 후속 주자들에게 좋은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튜버를 꿈꾸는 사람들이 대부분 착각하는 게 ‘조회 수대로 돈을 받는다’는 것”이라며 “유튜브는 다양한 알 고리즘과 시청시간 등으로 단가를 따로 매긴다. 이목을 끌려고 조회 수에만 목을 매

면 통련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인방송 외에도 인터뷰, 강연, 매체 방송 출연 등 다양한 활동을 하는 그에게 시쳇말로 ‘덕업일지’ (좋아하는 것과 일이 일치하는 것)가 아무리 좋지만 힘들지 않냐고 묻자 그는 고개를 저었다.

“가웃일이 힘들긴 한데 유튜브하는 거는 전혀요. 친구들과 카페에서 수다 떨듯, 하루를 마무리하는 의식 같은 거라서요.” 주 6일 생방송을 몇 년째 고수하는 ‘대가’다운 답변이었다.

예능부터 드라마까지 다양한 방송에도 출연 중인 그는 “방송과 1인 미디어 결합은 앞으로도 있을 현상이지만 방법 면에서는 과도기라 아직은 1인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지 방송사들도 잘 모르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방송가에도, 연예인들에게도 2019년은 1인 미디어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해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1인 미디어가 방송에 가기도, 연예인들이 유튜브로 오기도 하니까요. 스타들이 과거에는 유튜브의 가치를 잘 몰랐지만, 지금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진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그는 그러면서 “유튜브는 TV가 못하는 것을 할 수 있지만 TV는 그렇지 못하고, TV는 개인이 아닌 팀플레이라 서로 다른 부분이 많다”고 덧붙였다.

끊임없이 콘텐츠를 만들어내면 스스로 ‘소모’된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을까.

대도서관은 “트렌드가 바뀌는만큼 콘텐츠는 끊임없이 생산할 수 있다”며 “제가 주로 하는 게임 콘텐츠 역시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계속 새로운 걸 만들어낼 수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부도 많이 한다. 지금 작곡, 프로듀싱을 배우는데 제가 유튜브에서 쓰는 음악을 직접 만들고 싶은

욕심 때문”이라고 의욕을 내비쳤다.

그는 장기 목표에 대해서는 “제 퍼스널 브랜드를 갖고 여러 비즈니스를 하고 싶다. 특히 집이 아닌 야외에서 방송하고, 캐릭터 사업 같은 것도 병행할 수 있다면 좋겠다”며 “저는 정말 ‘재미주의자’다. 늘 재미 있는 것을 하고 싶다” 말했다.

대도서관은 인터뷰 내내 퍼스널 브랜딩을 강조했다. “내가 속한 단체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값어치를 올리는 게 중요하진 시대죠. 그걸 위해 가장 효율적인 플랫폼이 유튜브라 생각합니다. 취업과도 관련 있어요. 예전에는 구인자가 구직자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니 학벌 등을 봤지만, 영상을 계속 찍어준다면 그것보다 확실한 증거물은 없거든요. 내가 이 분야에 대한 정과 전문성이 있다”고 증명할 수 있는 영상요. 1인 미디어가 레드오션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연합뉴스

배우 박상민(49·사진)이 오는 4월 11일 연하의 신부를 맞이한다.

소속사 위브나인은 박상민이 오는 4월 초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양가 가족과 친지, 가까운 지인을 초대해 11살 연하의 연예인이 아닌 여성과 결혼한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지인들과 함께 만나는 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은 후 사랑을 키워왔다”며 “박상민이 예비 신부의 사려 깊은 마음과 배려심, 긍정적인 마음에 반해 인생의 동반자가 되기로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바로 스타가 된 박상민은 그동안 다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해 선이 굵은 연기를 했으며 다음 달 방송할 OCN 드라마 ‘빙’에도 출연한다.

소속사는 “박상민이 결혼 후에도 배우로서 영화와 드라마를 떠나며 활발하게 활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시립교향악단 제341회 정기연주회

8일 문예회관 대극장...바이올리니스트 이승원 협연

광주시립교향악단은 제341회 정기연주회로 ‘슈만의 봄’을 오는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광주시립교향악단의 정기연주회

는 상임지휘자 김홍재가 지휘봉을 잡고 노부스 카르렛 멤버로서 활약했던 비올리스트 이승원이 협연자로 무대에 오른다.

매회 다양한 시대의 음악과 시의 적절한 프로그램 구성으로 광주시민들에게 다채

로운 클래식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김홍재 상임지휘자의 이번 공연 컨셉은 ‘봄’이다. 주제의 ‘시인과 농부 서곡’부터, 슈만의 ‘교향곡 1번, 봄’까지 서정적이면서도 활기찬 곡들로 봄의 시정을 노래한다.

슈만의 봄 1부 서막은 주제의 오페레타 ‘시인과 농부’ 서곡이다. 경쾌하고 활기찬 음악으로 생기 있는 봄의 이미지와 잘 어

울리는 곡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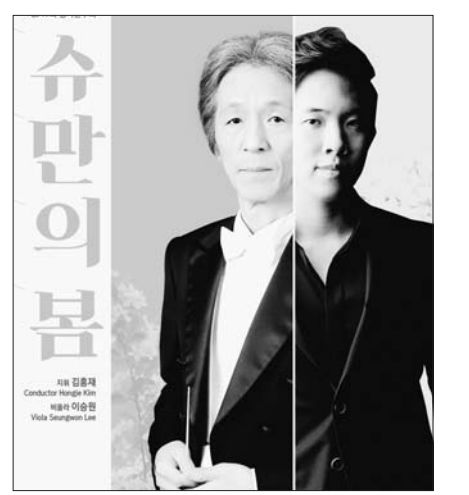
이어서 연주될 곡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작곡가 바르톡의 ‘비올라 협주곡’이다. 독일과 한국을 오가며 활발하게 연주활동을 하고 있는 비올리스트 이승원이 광주시향과의 완벽한 호흡으로 광주시민에게 선보인다.

이날 음악회의 하이라이트는 후반부에 연주되는 슈만의 ‘교향곡 1번, 봄’이다. 슈만이 클라리넷과 결혼 허가를 받은 것이 올해, 불과 두어 달 만에 빠르게 완성한 곡이다. 작곡가 인생에서 봄과 같은 시기

에 넘치는 영감 속에 탄생한 작품으로 전 악장에 생기와 행복감으로 가득하다.

비올리스트 이승원은 안톤 루빈스타인 국제 콩쿠르를 비롯해 국내외 유수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노부스 카르렛의 멤버로 잘츠부르크 모차르트 국제 실내악 콩쿠르 우승, 독일 ARD 국제콩쿠르에서 준우승하며 활약했다.

티켓은 R 3만원, S 2만원, A 1만원(학생50%)이며 광주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를 통해 예매 가능하다. /유조윤 기자 yuzy@



TV 안내					
이 프로그램은 방송국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SBS	EBS
00 KBS 뉴스광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1부)	6	00 MBC 뉴스투데이(1) 25 MBC 뉴스투데이(2)	00 모닝와이드(1부) 30 모닝와이드(2부)	00 한국기행(재) 20 세계대미기행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부)	7	50 용왕님 보우하사	40 모닝와이드(3부)	00 강철소년대 파이아로보(재) 30 띠띠뽀 띠띠뽀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 타임	8	30 생방송 오늘 아침	40 강남스캔들	00 당동명 유치원 45 방귀대장 뽕뽕이
30 KBS 뉴스	00 비켜라 운명아 40 그녀들의 여유만만	9	30 930 MBC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아침	00 뽕뽕뽕 뽕뽕로 30 우리는 비트몬스터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50 월화 미니시리즈 아 이템 연박싱	10 SBS 뉴스 30 살맛 나는 오늘	30 한국기행(재) 50 최고의 요리비결
00 다큐공감 50 UHD 현식의 마음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2:죄와 벌	11	50 기억,록 100년을 탐 험하다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20 세계대미기행(재)
00 KBS 뉴스 12		12	00 12 MBC 뉴스 25 MBC네트웍스톡	00 SBS 12 뉴스 50 동상이몽2너는내..	00 EBS 정오뉴스 10 극한직업 스페셜
00 네트워크기획 문화.. 50 역사저널 그날	10 트레킹노트 세상을..	1	25 헬로킴즈 신비한 자연 교실 55 2시 뉴스 외전		00 다큐 오늘 40 배워서 남줄림(재)
40 와일드코리아플러스	00 KBS 뉴스타임 10 생생정보 스페셜	2		00 뉴스브리핑	30 몬카트(재)
00 시니어토크쇼황금..	00 자동차부채상 위키2 30 TV 유치원	3	25 뿌까 55 뽕뽕뽕 모뉴야 놀자		00 마사와 곰 스페셜 25 그림 그려줘, 루이
00 사사건건	00 여유만만(재)	4	25 꾸러기 식사교실 55 5 MBC 뉴스	00 생활의 달인	30 방귀대장 뽕뽕이(재) 45 당동명 유치원
00 KBS 뉴스 5 30 동물의 왕국	00 다큐멘터리 3일	5	15 MBC플러스특선 대 한외국인	00 SBS 오뉴스	15 마사와 곰 30 띠띠뽀 띠띠뽀
00 6시 내고향	00 KBS 경제타임 30 2TV 생생정보	6	15 생방송 오늘 저녁	00 순간포착 세상에 ...	00 푹!푹! 보니 하니 25 로봇 발명왕 러스티
00 KBS 뉴스 7 40 우리말 겨루기	50 원소잡이 아내	7	15 용왕님 보우하사 55 MBC 뉴스데스크	00 생방송 투데이	00 몬카트(재) 30 SBS 뉴스
30 비켜라 운명아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8	55 색션 TV 연예통신	00 SBS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40 세계대미기행
00 KBS 뉴스 9 55 나의 독립 영웅		9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라임
00 가요무대	00 동네변호사 조들호 35 동네변호사 조들호	10	00 아이템 35 아이템	00 해치	45 우리가족 거리 좁히 기-부모성적표
00 오늘밤 김제동 40 저널리즘 토크쇼J	10 안녕하세요	11	10 창사특집 UHD 다큐 멘터리 곰	10 동상이몽2 너는내운 명	55 배워서 남줄림
30 KBS 뉴스 40 이웃집 찰스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12	25 아이템	30 나이트라인	45 지식채널e 50 세계의 드라마

오늘의 운세

인스타그램 NO1 사주솔루션 더.사주 THE 사주

속 시원한 사주풀이 더.사주가 책임집니다!

3월 4일 (음력 1월 28일) www.instagram.com/the.saju KAKAOTALK : themaj

	60년생: 가만히 있지 말고 여기저기 움직이지. 72년생: 받을 돈이 있다면 오늘 전화해보자. 84년생: 조금은 대범한 마음이 필요하겠다. 96년생: 상황이 시작되기 전에 입장정리를 하자.		66년생: 다름에서 이기더라도 남는 것은 없다. 78년생: 집안 일은 배우자에게 믿고 맡겨보자. 90년생: 무한한 가능성도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 02년생: 특별히 가로막는 난관없이 순조롭다.
	61년생: 대가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힘이 든다. 73년생: 이해심이 빛을 발하는 날이 될 것이다. 85년생: 손 쉽게 해결하려는 환상은 버려라. 97년생: 잘된다 안심할 때가 내려가는 길이다.		67년생: 재물이 좋을 때는 건강을 챙기자. 79년생: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나다 하였다. 91년생: 말만 믿고 행동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니 모든 일에 확인과 검증을 거치자.
	62년생: 가계부를 꼼꼼하게 정리해야만 한다. 74년생: 억지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순 없겠다. 86년생: 내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는 날이다. 98년생: 단점도 예쁘게 보이는 사람이 생긴다.		68년생: 당당함이 있다면 다시 일어설 수 있으니 나를 표현하는 방법을 연구해보자. 80년생: 봉사한다는 마음이면 만사 수월하다. 92년생: 사람을 얻지만 돈이 나가는 하루였다.
	63년생: 더 초라해지기 전에 말을 아껴야한다. 75년생: 겸소도 좋지만 우유부단함은 피하자. 87년생: 세상살이가 다 원하는데로 안 된다. 99년생: 상대를 아끼는 말 한마디가 중요하다.		69년생: 새로움보다 현재 마무리가 중요하다. 81년생: 재물은 나의 그릇만큼 담아지는 것이다. 93년생: 힘들다고 생각하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일 수 있으니 고뇌하고 노력하자.
	64년생: 투쟁심이 강해지면 반감이 커지겠다. 76년생: 하고싶은 말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자. 88년생: 한 눈 팔지 않으면 큰 성과가 있겠다. 00년생: 내 의견을 주장하는 연습이 필요하다.		70년생: 잘못 된 일이나 부정적 청탁은 피하자. 82년생: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행운이 깃들니, 새로운 일에 도전해도 좋겠다. 94년생: 다른 사람 입장도 생각해 현명히 굴자.
	65년생: 많은 만남에서부터 행운이 있겠다. 77년생: 과부하가 됐으니 여가시간이 필요하다. 89년생: 무엇보다 마음의 중립이 필요하겠다. 01년생: 흐름에 맞춰 작은 일도 다시 돌아보자.		59년생: 조언들을 잘 경청하여 방향을 정하라. 71년생: 마음 놓고 월 날이 없어 근심이 쌓인다. 83년생: 신중하지 않으면 공들인 것이 무너진다. 95년생: 계획대로 행동하니 계획대로 이뤄진다.